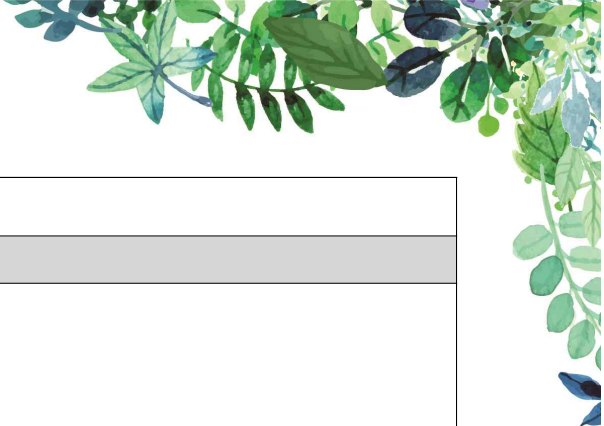


ABS BRIEF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기 간	2016년 5월 1일 ~ 31일
-----	-------------------

요 약

● 국내동향

【신문기사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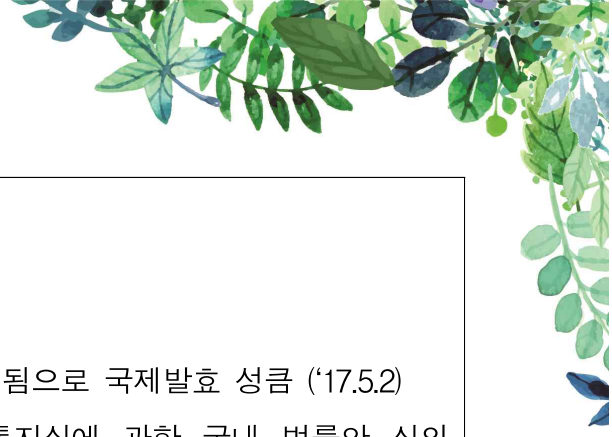
- "병원체 공유도 나고야의정서 분쟁 대상" ('17.5.1)
- 문재인 정부, 화장품산업 종합컨트롤 타워 추진...화장품업계 기대감 '술술' ('17.5.11)
- '나고야의정서' 농자재업계에 발등의 불 ('17.5.15)
- 강원도, 일본 아이치현과 환경분야 협약 ('17.5.18)
-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함양에 새둥지 마련한다. ('17.5.18)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부심 ('17.5.18)
- 외교부, 나고야의정서 유엔 기탁...8월부터 효력 ('17.5.24)
- 나고야의정서 대응 마련했나 ... "아직 계획 없다" ('17.5.26)
- 나고야의정서 대비한 식약처 "생약정보 한 곳에" ('17.5.26)
- 임업진흥원, 산림분야 품종보급 활성화 모색('17.5.29)

● 국외동향

-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00개국(99개국+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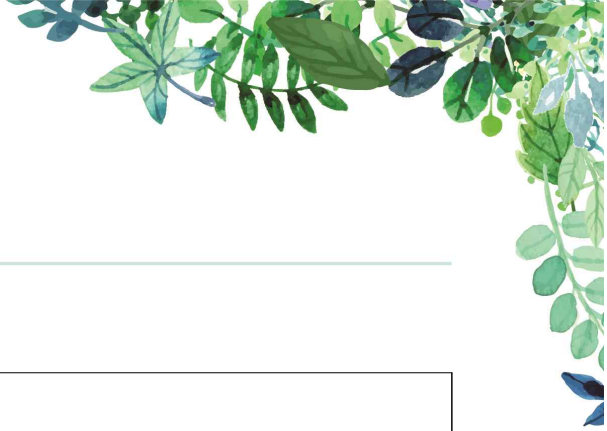
지역	비준 국가	합계
아시아	요르단, 인도, 라오스, 시리아, 몽골,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부탄, 미얀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카타르, 한국, 일본, 쿠웨이트	21
오세아니아	피지,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바누아투, 마셜제도	5
유럽	서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독일,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12
	기타 알바니아, 헝가리,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불가리아, 몰도바, 룩셈부르크, EU	11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 온두라스, 가이아나, 과테말라, 페루, 우루과이, 도미니카, 쿠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안티가바부다	12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세이셸, 모리셔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코모로스,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베닌, 케냐, 나미비아, 우간다, 니제르, 부룬디, 마다가스카르, 감비아, 모잠비크, 수단, 말라위, 기니,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지부티, 토고, 세네갈, 잠비아, 말리,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카메룬,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39

- 포르투갈('17.7.10), 한국('17.8.17), 일본('17.8.20), 쿠웨이트('17.8.30)는 당사국(Parties, 현재 96개) 예정



【 신문기사 및 기타 】

- 쿠바,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38번째 당사국이 됨으로 국제발효 성큼 ('17.5.2)
- 나미비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국내 법률안 심의 ('17.5.11)
- 일본, 대한민국 이어 99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17.5.22)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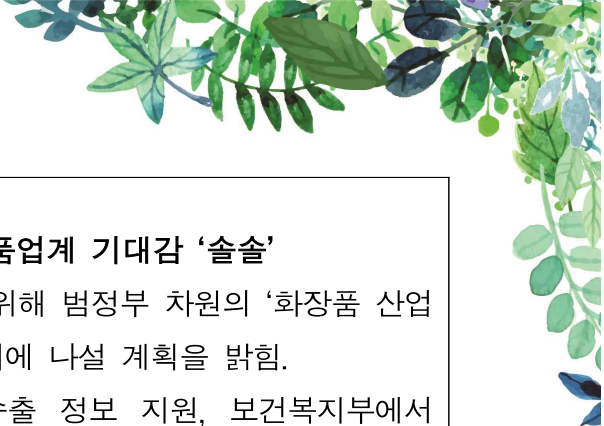
주요 동향 정보

【신문기사 및 기타】

□ "병원체 공유도 나고야의정서 분쟁 대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코엑스에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서 병원체에 대한 국제적 고민에 대해 언급.
 - 나고야의정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검사키트나 치료제, 백신 등 생산에 필수적으로 생물자원들이 사용되기 때문.
 - 병원체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발생한 조류독감(H5N1) 바이러스를 WHO에 제공하길 거부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바 있어서, 국제사회는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개발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제공하고, 백신의 국제공동비축 등을 제시한 2011년 PIP(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프레임워크를 채택.
 - 물론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이후에도, 병원체와 이익공유와 관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대립은 지속.
- WHO는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올해 1월에 개최된, 제140회 이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병원체 공유에 미치는 영향, 병원체 이익공유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 증진 선택사항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 현행 나고야의정서의 범위 및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 거래비용 증가, 국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백신, 진단기술, 의료대책의 신속한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원체 자원 확보는 물론이고, 기업 역시 국제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연구원은 "앞으로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국가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인식제고가 가장 큰 부분이다. 기업은 분쟁에 주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조건 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

※ 청년의사 ('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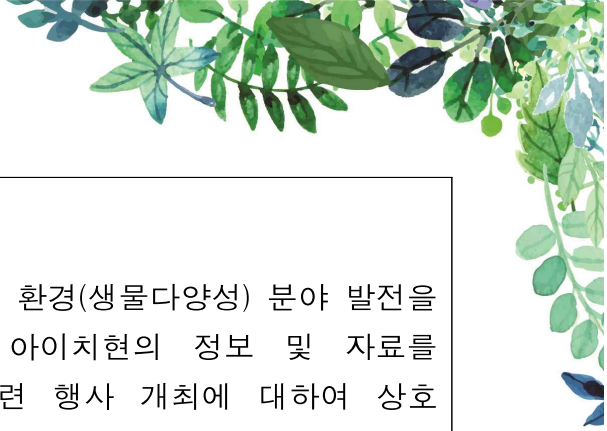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 화장품산업 종합컨트롤 타워 추진…화장품업계 기대감 ‘솔솔’**

- 문재인 대통령은 화장품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 산업 육성 및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화장품 법령과 수출 정보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신소재·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을 통한 해외인증획득 등을 지원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여전.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화장품 산업 정책 공약으로 범부처 협업모델을 구축을 골자로 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제시하여, 종합 안전시험·관리, 타 산업과 기술 연계, 나고야 의정서 문제 해결, 국내외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을 종합해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
 - ※ 스페셜경제 (‘17.5.11)

□ **‘나고야의정서’ 농자재업계에 발등의 불**

- 국내 의약·바이오·농자재업계 등은 해외 유전자원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로열티 상승, 자원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높음.
- 실제로 국내기업의 48.8%가 중국·미국·뉴질랜드 등의 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가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계가 떠안아야 할 추가 부담이 연간 35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한약재·건강기능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업관련 분야에서 예상되는 피해액은 연간 312억~573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안정모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기능성 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들여오면, 다른 국제협약에서 정한 예외품목이 아닌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되며, 해외바이어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확인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채성훈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부연구위원은 “동식물로부터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미생물 농약·비료 등의 농자재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궁극적으로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
- 정부는 이에 따라 6월쯤 농업생명자원에서 유래한 신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농생명 소재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국내 유전자원 수집을 2016년 159만5,000점에서 2020년 200만점까지 확대할 계획.
 - ※ 농민신문 (‘17.5.15)



□ 강원도, 일본 아이치현과 환경분야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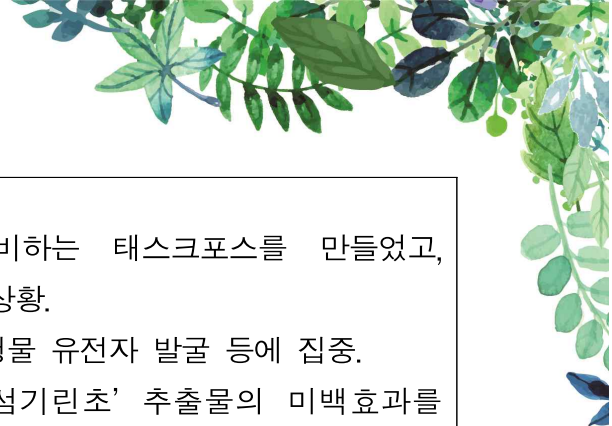
- 강원도는 2017.5.18.(목)일 일본 아이치현을 방문하여 환경(생물다양성) 분야 발전을 위한 실무급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와 아이치현의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생물다양성 분야 사업 공동 추진, 관련 행사 개최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
 - 강원도는 '14년 평창, '16년 멕시코 칸쿤(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양 도·현 양자회담을 통하여 환경분야, 특히 생물다양성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본 아이치현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
 - 박재복 녹색국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 도·현의 공동 협력사업이 중요 모델로서 세계에 전파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과 수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 불교공뉴스 ('17.5.18)

□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함양에 새동지 마련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 부지로 이전하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이전 청사 기공식을 18일 가짐.
 -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 사업은 국가 주요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전북 남원시에서 경남 함양군으로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며, 2018년까지 1,059억 원을 투입해 종합연구동, 축사 등 54개동과 연구시설과 초지, 사료포 등을 조성할 계획.
 -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멸실 위기에 있는 희소한우와 재래가축 2천여 마리, 생식세포, DNA 등 국가 중요 가축유전자원 25만여 점을 보유.
 - 기공식에 참석한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국내 관련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의 시행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주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주권의 확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무가 됐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가 중요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 정책브리핑 ('17.5.18)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부심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회사들은 화장품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자원에 의존하는 만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
-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화장품 원료의 64%는 해외산이며,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산업계가 추가 지급해야 할 돈이 연간 5,0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부터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LG생활건강도 대응팀을 꾸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 대응책으로 화장품회사들은 국내 토종생물이나 특이생물 유전자 발굴 등에 집중.
- 아모레퍼시픽은 독도와 울릉도에서만 서식하는 ‘섬기린초’ 추출물의 미백효과를 확인해 관련특허를 출원하고 화장품을 개발 중이고, LG생활건강이 지난해 출시한 ‘비욘드 피토 모이스처’ 스킨케어 라인도 제주 곡물과 제주 화산 암반수가 원료임.

※ 비즈니스포스트 ('17.5.18)

□ 외교부, 나고야의정서 유엔 기탁...8월부터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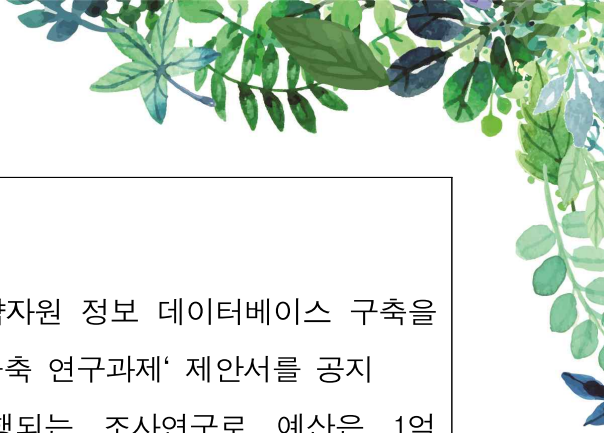
- 외교부는 지난 19일 주 유엔대표부를 통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힘.
- 지난 2014년 10월 12일자로 발효됐으며 2017년 5월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하여 99개국 동 의정서를 비준.
- 나고야 의정서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서 발효 후 동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 이후 90일 째에 당사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됨.
-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이번 비준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해외에서 이용되는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이용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

※ KBS뉴스 ('17.5.24)

□ 나고야의정서 대응 마련했나 ... "아직 계획 없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은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산업분야별 해외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주제로 제19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
- 이번 ABS 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분야별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지만,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이행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대비는 미흡한 상황.
-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주요 바이오산업계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음.

※ 환경미디어 ('17.5.26)



□ **나고야의정서 대비한 식약처 "생약정보 한 곳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고야의정서를 대비한 국가 생약자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비 국가생약자원정보 총괄DB 구축 연구과제' 제안서를 공지
 - 연구는 8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총 11개월간 진행되는 조사연구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며, 국가생약자원의 체계적 관리, 연구 및 산업화에 활용될 생약자원정보 총괄DB 구축하는 게 목적임.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대응현황 및 제외국 동향 파악,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생약자원정보 수요조사, 생약자원 DB틀 구축 및 타부처 정보시스템 연동방안 모색, '생약자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정보수집, 조사계획 마련, '국가생약자원정보 총괄DB' 구축 및 정보입력 등임.
 -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 생약자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및 산업화에 필요한 생약자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생약자원의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성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생약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포털 운영을 할 방침이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부처인 관세청, 환경부, 산림청, 농진청 등 관련 부처 포털도 연계할 계획임.

※ 메디파나뉴스 ('17.5.26)

□ **임업진흥원, 산림분야 품종보급 활성화 모색**

-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지난 25일 대전 '베니키아 호텔 대림'에서 '산림분야 품종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품종 재배자와 유통·판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종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우량품종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
 - 이날 간담회는 산림분야 품종관련 정책, 품종보호제도 및 품종 등록 현황, 산림품종 보급 실태, 산림버섯·산림과수·특용자원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짐.
 - 김남균 임업진흥원장은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70%정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자의 품종보호제도 인식 제고와 우량 품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농수축산신문 ('17.5.29)



국외 동향

주요 동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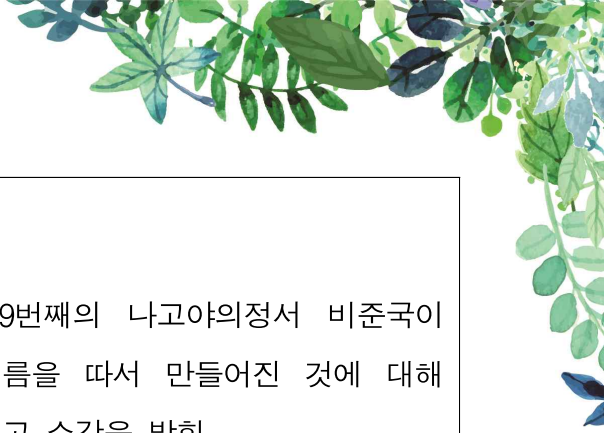
【 신문기사 및 기타 】

□ 쿠바,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38번째 당사국이 됨으로 국제발효 성큼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CBD사무국)은 쿠바가 38번째 당사국이 되면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의 발효가 가까워졌다는 공문 (COMMUNIQUÉ)을 발송.
-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는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대하여, 관련된 적절한 국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5차 CP MP(10.10)에서 채택된 후속 의정서임.
- 본 추가의정서의 제18조에는 “이 추가의정서는 의정서 당사국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 통합기구의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라고 명시.
- Cristiana Paşca Palmer 사무총장은 공문 말미에 다른 국가들의 본 추가의정서의 비준을 독려한다고 권고했음.
- * 본 추가의정서 간략소개 : http://bch.cbd.int/protocol/NKL_ratification.shtml
- ** 본 추가의정서 현황공지 : <http://bch.cbd.int/protocol/parties/#tab=1>
- ※ CBD사무국 공문 (‘17.5.2)

□ 나미비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국내 법률안 심의

- 나미비아 국회가 올해 4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을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전통지식 법률안(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Bill)”을 통과시킴.
- 하원을 통과한 ABS 법률안은 현재 나미비아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진행 중임.
- 이 법률안에 따르면 나미비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자는 국가나 공동체의 대표 기관의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승인) 시스템을 통해 MAT(Mutually Agreement Term, 상호합의서)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 또한, 본 법률안이 없을 때까지는 “임시 생물탐사 위원회(Interim Bioprospecting Committee, 이하 IBPC)”가 본 업무를 수행함.
- ※ AllAfrica (‘17.5.11)



□ 일본, 대한민국 이어 99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 일본은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추어 99번째의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으며, 2010년 시작된 의정서가 나고야 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 고이치 야마모토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정부의 영예라고 소감을 밝힘.
- 일본 생물다양성 펀드(Japan Biodiversity Fund)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이루었다고 주장.
- 앞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비준에 대해서 크리스티나 사무총장은 "이번 대한민국의 비준은 세계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생물다양성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향한 노력이 점차 커짐을 보여준다."고 축하했으며, CBD 사무국은 일본의 99번째 비준 후, 이제 곧 숙원이었던 100개의 비준국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함.
-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 째 발효되어 한국은 8월 17일, 일본은 8월 20일 의정서 당사국이 될 예정.
- 한편, CBD 사무국은 16번째의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주제: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맞이하여 인식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사이트(관광 중심)들을 운영하고 있음.
- www.cbd.int/tourism/guidelines.shtml;
- www.cbd.int/idb/2017/briefs/
- www.cbd.int/idb/2017/celebrations/
- * 대한민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한 보도자료 :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05-22-abs-en.pdf>
- ※ CBD 사무국 보도자료 ('17.5.22)



ABS BRIEF 제61호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편집인 장영효 ABS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안민호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이수효 ABS연구지원센터 연구원

편집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전화) 042-860-4626, 042-879-8332~4

(FAX) 042-879-8339

(홈페이지) www.abs.re.kr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ABS BRIEF (Volume 61)

1 June 2017

Publisher: President of KRIBB

Publish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Edited in ABS Research Support Center, KRIBB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el: +82-42-860-4626, +82-42-879-8332~4

FAX: +82-42-879-8339

Homepage: www.abs.re.kr

[비 매 품]

'ABS BRIEF -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abs.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